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FRANCIS 교황과 연대하여 주 법에서 사형을 없애는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

Cuomo 주지사: “오늘 저는 Francis 교황님과 연대하고 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역사 속 추한 얼룩인 사형을 주 법에서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Francis 교황님께서 모든 경우에서 사형 인정 불가를 공표하고 세계적으로 사형 관행을 중단함으로써 우리를 옳은 세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형은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Francis 교황님의 결정은 사형 지지자들에 맞서 반대하셨던 제 아버지의 원칙적 입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형 반대에 정치 생명을 걸었으며 절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Mario Cuomo는 주지사인 12년 동안 사형 부활 법안을 12번 기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형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며 행복하느니 주지사 자리를 잃는 것이 나을 정도로 자신의 믿음을 고수할 용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예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으십니다.

Pataki 정부 시절 뉴욕에서는 사형이 부활되었으나 2004년 법원에서 중지했습니다. 마지막 임기 연도에 제 아버지는 사형 제도를 ‘[우리 양심에 진 얼룩](#)’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법전에서 없애는 것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Francis 교황님과 연대하고 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역사 속 추한 얼룩인 사형을 주 법에서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